



■ 第1回 冊의 文化 세미나 主題發表

外書輸入의 問題點

劉 載 天
西江大教授 · 新聞放送學

1. 외국도서 수입현황

사회학자들 가운데는 현대사회의 기본적 사실로 기술폭발, 인구폭발, 도시폭발, 지식폭발 등을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이러한 폭발현상들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폭발현상을 가장 잘 체험하고 있는 사회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경제발전계획의 추진과 그에 따른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우리로 하여금 기술폭발, 지식폭발, 그리고 도시폭발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들 폭발현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찌기 체험하지 못했던 기술폭발과 지식폭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하면서 현대사회에서의 지식폭발현상이 얼마나 급격하고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과학자들의 90%가 현재 살아 있다.
- 1600년까지 모든 세기동안 저술되었던 모든 冊보다 더 많은 책들이 현재 매일 매일 세계 도처에서 저술되고 있다.
- 바로 이 순간 대학과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1950년까지의 인류역사가 지녔던 학생수보다 더 많은 것이다.
- 정부, 산업, 그리고 대학교는 오늘날 연구와 발전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쓰고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지식폭발현상을 나타내주는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변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폭발현상 자체도 그같은 변화계획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추진은 앞으로 더욱 더 기술폭발과 지식폭발현상

을 유도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기술폭발과 지식폭발은 대체로 선진산업사회의 기술과 지식을 도입하는데 자극받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기술폭발과 지식폭발은 선진산업사회의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여 이를 그대로 사회·경제적 변동의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기술과 지식의 축적과 토착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기술폭발과 지식폭발은 선진산업사회의 경험적 지식을 도입하는데 주로 의존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금의 우리나라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진산업사회의 경험적 지식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작업인 외국도서의 수입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선진산업사회의 경험적 지식의 도입이 원활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외국도서의 수입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먼저 최근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도서의 수입추세부터 살펴 보기로 하겠다. 70년대 중반기인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서적과 정기간행물의 부수와 수입액수를 정리해 본 것이 표(1)과 표(2)이다. 이 통계표는 무역연감에 수록된 「상품별 및 국적별 수입」 통계자료에서 발췌하여 筆者가 재정리한 것이다. 무역연감의 통계숫자에 의문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표(1)과 표(2)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외국도서의 수입추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표(1)을 보면 외국서적 수입 부수는 1977년도부터 전년도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입서적의 금액은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되어 왔다. 이같은 경향은 외국서적의 단가가 물가상승 요인때문에 높아져 왔다는

표 (1)

연도별 외국서적 수입추세
(서적은 단행본·팜프렛 및 리프렛을 포함한 것임)

(금액 단위 : U.S dollar)

연도 구분 나라	1974		1975		1976		1977		1978	
	부 수	금 액	부 수	금 액	부 수	금 액	부 수	금 액	부 수	금 액
일 본	1,387,031 (65.1)	1,912,758 (61.2)	2,530,472 (72.1)	1,525,560 (49.8)	4,423,875 (80.9)	1,703,151 (45.6)	2,667,805 (84.6)	2,169,652 (51.9)	1,886,925 (76.4)	3,882,614 (55.5)
중 국	54,241	20,517	58,952	23,921	173,596	38,876	50,429	14,772	58,628	20,470
홍 콩	74,661	28,578	102,652	13,823	33,462	15,539	62,490	32,448	21,907	22,314
싱 가 포 르	17,211	33,549	22,759	42,932	7,464	25,108	13,465	39,261	3,749	30,911
베 국	75,129	11,051	486	520	—	—	—	—	—	—
프 랑 스	8,677	24,739	12,001	27,526	37,690	56,610	11,017	19,413	25,500	63,651
영 국	61,691	53,747	76,024	95,836	38,391	82,583	33,782	108,718	12,189	108,135
미 국	43,649	90,872	51,433	102,545	42,904	120,367	56,347	205,200	74,865	374,150
기 타	380,938 (17.9)	924,317 (29.6)	581,516 (16.6)	1,162,177 (37.9)	682,333 (12.5)	1,624,333 (43.5)	235,060 (7.4)	1,466,193 (35.1)	374,806 (15.2)	2,421,797 (34.6)
계	2,131,463 (100.0)	3,124,629 (100.0)	3,507,396 (100.0)	3,062,061 (100.0)	5,471,582 (100.0)	3,731,078 (100.0)	3,155,211 (100.0)	4,181,209 (100.0)	2,470,217 (100.0)	6,992,151 (100.0)
전년도대비 증 감	0	0	+46.1%	-2.0%	+56.0%	+21.8%	-42.3%	+12.1%	-21.7%	+67.2%

※ ()은 %.

표 (2)

연도별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추세

(단위 : U.S dollar)

연도 구분 나라	1974		1975		1976		1977		1978	
	신 문	기타정간	신 문	기타정간	신 문	기타정간	신 문	기타정간	신 문	기타정간
일 본	296,898 (92.9)	243,811 (47.9)	351,985 (90.2)	487,062 (53.6)	372,335 (88.9)	534,249 (49.4)	473,510 (89.1)	843,137 (60.4)	651,101 (92.9)	1,219,429 (68.3)
홍 콩	1,006	51,747	—	68,411	1,333	78,878	5,720	116,838	4,920	122,813
프 랑 스	4,122	7,007	6,271	6,340	2,640	1,485	—	11,706	2,196	7,856
영 국	3,788	8,105	9,071	13,866	11,446	13,773	9,037	23,950	18,972	22,247
미 국	13,105 (4.1)	173,603 (34.1)	22,635 (5.8)	297,466 (32.7)	30,858 (7.4)	404,814 (37.4)	43,382 (8.2)	357,430 (25.6)	23,086 (3.3)	392,431 (21.9)
기 타	784	24,442	281	36,126	—	48,243	—	43,142	—	20,804
계	319,703 (100.0)	508,715 (100.0)	390,243 (100.0)	909,271 (100.0)	418,612 (100.0)	1,081,442 (100.0)	531,649 (100.0)	1,396,203 (100.0)	700,275 (100.0)	1,785,580 (100.0)
전년도대비 증 감	0	0	+22.1%	+78.7%	+7.3%	+18.9%	+27.0%	+29.1%	+31.7%	+27.9%

※ ()은 %.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입된 외국서적 부수에 있어 일본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외국서적 수입 금액 가운데서 미국서적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78년의 경우 수입된 일본서적의 권당 가격이 약 2달러인데 비해 미국서적의 경우에는 권당 약 6.5달러에 가깝다. 그리고 이 표를 볼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서적의 경우 부수나 금액에 있어 일본서적과 미국서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정기간행물의 수입금액을 신문과 기타 잡지로 구분하여 본 것이 표(2)이다. 표(2)를 보면 신문과 기타 정기간행물의 수입금액 역시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문수입 금액의

경우 매년 일본신문의 수입금액이 전체 외국신문수입 금액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 이외의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도 최근 2년간에 걸쳐 일본의 정기간행물 수입액수가 전체 수입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표(1)과 표(2)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현저한 추세는 ① 수입금액이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② 서적의 경우 부수는 감소되어가고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 아직도 외국도서수입의 경우 일본도서의 수입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본도서의 수입이 금액으로나 부수에 있어서나 다른 어느 나라의 도서수입 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일본문화의 영향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여기서 일본도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것을 분석해 볼 여유는 없지만 이같은 현상은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만 받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외국도서 수입추세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은 수입도서의 분야별 점유율이라 하겠다. 최근의 통계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76년도의 통계를 근거로 이 문제를 추정해 보면, 76년도 우리나라에 수입된 도서의 분야별 점유율은 자연과학분야 도서가 약 43%, 종류가 약 22%로 이 두 분야의 도서가 76년 총도서수입 부수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사회과학의 약 16%였다. 이렇게 볼 때 76년의 경우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도서가 자연과학이나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량밖에 수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이같은 경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현상은 균형있는 지식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 70년대에 추진했던 경제의 고도성장정책과 공업화정책이 자연과학의 지식과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연구를 자극한 유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 분야의 기술과 지식의 발전과 축적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중점 지원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연히 그 분야의 외국도서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를 보인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연과학에 치우친 외국도서 수입은 다른 분야와의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함으로써 우리나라 장래의 균형 있는 학문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외국도서 수입상의 문제점

(가) 수입절차상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도서를 수입하는데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은 수입추천과 통관절차상의 문제점과 내용검열의 문제점 등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문제점 가운데서 먼저 수입추천과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1) 현재의 외국도서수입 절차를 보면 ①문공부에 수입도서추천신청 ②추천을 받아 외환은행에 수입면장(IL)허가 신청 ③수입면장을 받아 외국출판사에 수입도서목록과 기타 서류 발송 ④도서도착 ⑤통관의 과정을 밟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추천도서 수입면장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3개월 내에 도서의 통관을 마쳐야만 한다는 규정이다. 외국도서수입 실무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다. 출판사와의 서류왕래 및 선적기간과 운송기간, 그리고 통관상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급박하다는 얘기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도서수입의 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규정 때문에 수입상에 따라서는 출판사에 수입도서를 사전발주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도서수입기간을 3개월로 짧게 잡아놓음에 따라 여러가지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왜 이 기간의 연장이 안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 외국도서 수입상들의 경우 적시에 책을 수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주문도서가 적시에 원메자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많아 수입상이나 수요자 양측에 모두 피해를 주는 일이 흔하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문공부를 비롯한 도서수입을 관장하고 있는 여러 행정부서의 일처리 과정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도서수입업자가 문공부에 수입도서추천서를 내면 문공부는 내규상 이를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공부의 처리는 빠를수록 좋을텐데 대개의 경우 마감기일을 충실하게 지키는 형편이라고 한다. 물론 문공부 담당부서의 인력부족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가능한 한 이런 절차상의 과정에서 시일을 단축해 주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배민봉사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추천도서를 통관하는 경우 예를 들어 15권한결로 된 전집을 수입했을 때 때에 따라 1권이 빠진 14권만 도착했다면 이것이 추천서 내용과 상이하다고 해서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말하자면 세관의 통관업무가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럴 때 수입상은 원점으로 돌아가 추천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겪어야 함은 물론이다.

(3)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높아짐으로써 도서수입에 사용되는 외환의 실링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또한 문공부가 학자 등 실수요자에게 5백달러 한도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도서를 수입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제도적 개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라도 흑시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받아 도서수입의 실링을 낮게 책정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4) 문공부는 수입도서를 추천할 때 ① 수입불가 ② 부수 조절 ③요납본의 방법으로 수입도서 추천을 통제하고 있다. 이 세가지 수입도서 통제방법 가운데서 우선 부수 조절의 문제만 여기서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문공부는 불요불급품목의 수입은 부수조절 방법을 통해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부수조절에 있어 불요불급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때때로 불확실하거나 명확 하지 않다는데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책의 경우 이를 우리나라에서도 발행할 수 있다는 명목을 내세워 수입부수를 대폭 삭감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경우 저작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이를 찍어낼 수 있으므로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주석이 첨가된 작품을 구입해 보지 못한다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 각 대학에서 교재로 쓰는 소설의 부수를 불요불급품목이라 하여 대폭 삭감하는 경우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원치않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을 실무자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다. 소설이라 하여 불요불급품목으로 취급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만 한다.

다음 내용점들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수입불가 도서는 ① 대한민국의 국시를 위반하는 도서, 예컨대 공산주의 찬양도서나 북괴찬양 도서 등과 ② 우리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도서로 구분된다. 이같은 도서는 당연히 수입금지시켜야 마땅하다. 그리고 학문분야에 따라서는 불온도서일지라도 문공부의 추천을 받아 특수 이익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수입을 허가해 주는 제도가 있어 일반인의 경우 이 문제로 인한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서적일 경우일지라도 「사회주의」나 「칼 맑스」나 하는 실별만 보고 검열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데 있다. 林語堂이 쓴 책일지라도 영문인 경우 「Red china」라는 제호에 저자 이름이 영어로 Lin Yu Tang이라고 되어 있으면 불온서적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웃지못할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 있는 중단을 쫓아버렸다는 고사처럼 맑스의 망령이 우리나라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모양과 같다. 이런 문제는 검열 당국자가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파악할 능력을 못 갖추었거나 또는 책임회피의 요령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서적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국시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잘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당국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를 구하는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육석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책이름이나 저자 이름 또는 출판사 이름만 보고 추천을 보류하거나 통관을 해주지 않는 일은 시정되어야 한다.

(2) 문공부가 추천하고 통관이 된 책일지라도 뒤에 말썸이 생기면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문공부는 자신들이 수입을 허가했다 하더라도 업자들 자신이 내용을 검토하여 국시나 국가이익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서적은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한다. 물론 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일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업자들도 협조해야 할 일이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요청은 문공부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업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요청은 요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사항으로 두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근거로 업자에게 사후 책임을 묻는 일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가 생각된다.

(나) 외국도서 수입업자의 문제

외국도서를 수입하고 있는 업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1) 외국도서를 수입함에 있어 외국출판사와 계약상 수익율이 높은 도서를 편중수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

(2) 수입도서가 주로 교과서 등 많은 수의 복본도서 에 치중하여 선정되고 있다는 점과 도서선정자료나 지식의 결여로 양서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실정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자측은 각 전문분야별로 도서선정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3) 시장성이 있는 도서의 수입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닐가 생각되기도 한다.

(4) 수입을 주문의 양에 따라 발주함으로써 발주시일이 늦어져 적기에 실수요자의 손에 책이 도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도서수입절차상의 문제와 질이 연관이 있으므로 수입절차의 간소화 내지 수입자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기타문제

(1) 세계적인 추세는 도서, 특히 저널이나 신문 등을 마이크로 필름이나 피시에 담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도서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이들을 수입하는 경우 이를 도서로 취급하기 보다 필름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더 비싸게 부과하기도 하고 세관에 관독기가 없어 통관에 무척 오랜 시일이 걸리는

등 난관이 많다. 이런 자료들에 대한 세금책정을 내용보다 자료의 자체를 기준삼아 한다는 것은 고쳐야만 한다. 마이크로 필름만 아니라 테이프나 레코드 등도 도서로 취급해 주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시청각 교재나 저널 또는 신문의 백넘버 수입은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다.

(2) 외국계단에서 도서구입비를 기증한 경우 그 기증한 금액에 해당하는 도서를 돈 대신 책으로 들여오는 경우 그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의 세원으로 포착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세금을 책정하는 등 과세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실무자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외국도서수입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들

조잡하게나마 살펴 보았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값이' 冊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주어야 한다는 데 귀결된다. 바나나나 계란가루 등의 수입에 쏟는 배려와 책에 대한 배려가 같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느낌은 책에 대한 배려가 다른 상품의 수입에 베푸는 배려에 비해 훨씬 부족한 것 같다. 결국 책은 눈앞의 문제 해결이나 또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책이 주는 보상은 비록 장시일을 거쳐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좋은 나라로 만드는 길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외국도서수입에 따른 제반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도서 수입업자들도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실천에 옮겨 주기를 기대한다.

● 80年度 會費引上 案內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와 聲援에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後援과 積極的인 參與로써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自立財政의 確保라는 基本的인 問題가 아직껏 解決되지 않은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能動的이고 활발한 事業의 展開와 會員을 위한 權益擁護의 任을 積極 마련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너나 할 것 없이 會員 모두가 몹시 걱정해 오고 있으며 그 打開策에 대하여서 누누히 論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解決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現在 協會의 唯一한 財源으로 되어 있는 會員負擔金인 會費를 引上하는 問題가 '79年 定期總會席上에서 具體的으로 與論되어 80年度부터 引上기로 決議하였습니다.

協會가 계 機能을 發揮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最少의 財政自立만이라도 確保되어야 하겠습니까.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團體會費 :	A	급	年	120,000원
	B	급		80,000원
	C	급		50,000원
	D	급		20,000원
	E	급		10,000원
個人會費 :			年	4,000원